

2024년 4월 25일(목)

이른아침예배

인도 : 황효립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85장 다 같 이
 기 도 정명수 안수집사
 성 경 봉 독 에스겔 21:1~7 인 도 자
 찬 양 예수님은 세상의 빛 새벽찬양대
 설 교 『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 황효립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찬 송 276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오늘의 말씀 <에스겔 21:1~7>

- 1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 2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 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 3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 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지라
- 4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 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 5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 시 꽃이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 6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 피 탄식하라
- 7 그들이 네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 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 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 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 1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뵈올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 2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 3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 4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 5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 1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지 벌써 오래 되었고
험한 길에 곤한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 2 전애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 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 3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 주시고
주의사랑 품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담당

4/23(화)	4/24(수)	4/25(목)	4/26(금)	4/27(토)	4/29(월)
박재동 안수집사	우경섭 안수집사	정명수1 안수집사	김창동 안수집사	박명규 안수집사	김영식2 안수집사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4년 4월 25일(목)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항상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두 마음을 버리고 정금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근신하여 늘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항상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새문안교회를 지난 137년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문안교회 위에 항상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새문안교회를 통해 구원 받으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늘 모이기를 힘쓰며, 온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담임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교역자와 선교사에게도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사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문안교회가 여러 가지 송사와 난관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온 교인이 한마음으로 140주년까지 온전히 헌당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세계 가운데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어둡고 세속화된 문화를 고쳐 주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되심을 알 수 있도록 이 땅의 교육제도가 하나님의 진리로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북한의 독재 아래 고통받는 북한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남북이 통일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